

## 공부의 목적은 시험이 아닌 성장

글 김은서(호남제일고 3학년)

출신 중학교 풍남중학교  
중학교 성적 상위 4.2%  
진학 희망 학과 의예과

**Q. 중학교 시절 시험 기간에  
어떻게 공부했나요?**

저는 시험 3주 전 주말부터 시험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3주간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에 가서 하루치  
공부를 했고, 주말마다 세 과목씩 배분해서 공부했어요.

이때 **공부에 들이는 시간보다는 학습량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학습  
계획을 세울 때는 스터디 플래너 대신 ‘진도 막대’를 활용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접어  
들면 각 과목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학습 진도를 나타내는 막대를 그렸어요. 매일  
공부한 만큼 진도 막대를 색칠했죠. 이렇게 하면 학습량이 부족한 과목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균형 잡힌 학습을 할 수 있었어요. 시험 직전에는 시험 예상 문제  
를 직접 만들어 공부한 내용을 점검했습니다.

**Q. 주요 과목(국·영·수)과 암  
기 과목의 공부법을 각각 소개  
해 주세요.**

우선 국어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내  
용을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문학 작품의 경우 수업에서  
배운 해석을 완벽히 이해해 제 것으로 만든 후에 세부적  
인 내용을 암기했고, 문법은 예시 문장을 되새기며 익혔

습니다. 영문법을 공부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영어 본문의 경우 일단 지  
문을 정확히 해석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한 후, 중요한 문법 포인트를 찾아 분석했습  
니다. 그다음 지문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으며 암기했죠. 한편 **수학 개념이나 공  
식을 익힐 때는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  
면서 공부**했어요. 공식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직접 증명해 보기도 했죠.  
수학 문제집으로는 『썸』을 특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은 직후에는 복  
습용으로 A 단계를 풀었고, 시험을 준비할 때는 B, C 단계를 풀었죠.

사회나 역사, 예체능 같은 암기 과목은 교과서와 수업 시간에 받은 인쇄물을 꼼꼼  
히 읽은 후 외운 내용을 백지에 쪽 써 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  
로 외운 부분과 놓친 부분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었어요. 제대로 암기했는지 마지막

으로 확인하고자 교과서를 펴낸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Q. 고등학교 과정 선행 학습  
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EBS 올림포스 고난도 수학』을 활용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접한 고등학교 수학이었죠. 그 당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끙끙대며 풀었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쉬운 문제집으로 시작해도 충분했을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겨울 방학 때 본격적으로 선행 학습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국·영·수 모의고사 문제집을 구매해 일주일에 과목별로 두세 편씩 풀었습니다. 영어의 경우 독해 문제집을 통해 지문을 익혔어요. 사회·과학은 학교를 다니며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아 따로 선행하지 않았습니니다.

**Q.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위  
기가 온 적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함께 이  
야기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중학생 때 저는 오직 1등 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했어요. 1등에 쏟아지는 친구들의 관심이 좋고, 이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져 주변 친구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견제하게 됐어요. 그런 제 모습을 깨닫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과 스스로 비교하게 될 때마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재가 공부를 잘해서 신경 쓰여? 나도 잘하면 돼. 우리 같이 잘하면 되는 거야.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자.’ 그렇게 서서히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면 감정을 똑바로 마주하는 연습을 했어요. 저를 괴롭히는 열등감과 경쟁심을 마음속에 묻어 두기보다는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다독이려고 했죠. 때로는 제가 지닌 장점을 하나씩 되새겨 보기도 했어요. 그 결과 훨씬 편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답니다.

**Q.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학생 때와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생활 초반에는 중학생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내신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깨달았습니다. 중학생 때의 공부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저는 방향을 바꿔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공부**가 아닌 **역량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각각의 과목을 배우는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감이 잡혔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글이나 대화의 주제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어를 공부할 때는 지문을 읽고 글의 흐름과 주제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제목을 붙여 보거나 그림으로 지문 내용을 표현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틈틈이 영어로 된 영상을 보며 발음과 표현을 익히기도 했죠.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문제집을 푸는 데 그쳤던 중학생의 공부에서 한 발짝 나아간 거예요. 이렇게 공부의 목적을 시험이 아닌 스스로의 성장에 두게 된 것이 고등학교에 와서 겪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